

# 이웃인 듯 이웃 아닌 한·중·일 3국의 문화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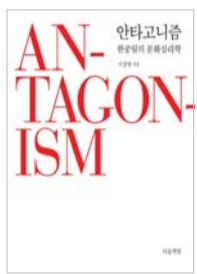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안타고니즘

지상현 지음

한, 중, 일은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도 대립과 길항의 관계를 이루어 왔다. 이웃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쟁과 속국, 정복과 피정복과 같은 갈등관계가 더 익숙하다.



그러다보니 쉽게 서로를 단정한다. '일본사람은 다 그래', '중국인들은 다 그렇기 뭐' 등등의 말들이 여전히 넘쳐난다.

'원형'은 개인이나 집단의 내면화된 이미지를 말한다. 이 말은 삶의 국면만큼이나 이미지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길항작용으로 번역되는 '안타고니즘'은 생물학적 개념이다.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등은 서로 상반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밀고 당기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문화 유전자들 모티브

로 각국의 문화심리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한성대 디자인대학 ICT디자인 학부 지상현 교수가 펴낸 '안타고니즘'이 그것. 지 교수는 문화를 매개로 공동체의 심리를 분석한다. 이전의 책 '한중일의 미의식·미술로 보는 삼국의 문화지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치밀한 결과물이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역사와 사회는 '밀고 당김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 나라의 '이웃'을 쉽게 단정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관점을 취한다.

먼저 저자는 중국인의 감성적 기질에서 밀고 당김은 '개방과 폐쇄'로 봤다. 토루(土樓)는 서남부 푸젠 성 용딩 현, 장저우 난징 현, 화안 현에 있는 집단주택단지로 2008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토루의 시작은 중국 송나라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방에서 급나라가 침입하자 중원지역 거주민들이 푸젠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주민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에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공동주택 토루를 짓는다. 저자는 토루는 1층 출입구 말고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 없다고 설명한다. 1층은 식당과 부엌, 2층은 창고, 3층부터 주거용인데 대개 수백 명이 살았다고 하니 온 마을이 한 집에 사는 격이다. 폐쇄적 기질을 방증한다.

개방적 감성은 위난 성 승상사의 초대형 삼탑에서 찾는다. 세 탑 가운데 가장 높은 사각탑은 13층 69.13m로 전망에 대한 욕구가 반영돼 있다. 중국 사람들은 멀리 보려는 심리에서 높은 탑을 짓는다는 것이다.

일본인은 축소와 확장의 유전자에 있다. 한국에서 불타는 사찰 법당 안에 있지만 일본 부츠단은 가정집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의 미학이 깃든 '분청자선각추상문편병'.

에 있다. 이들은 독실한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집에 부츠단을 들이는 풍습이 있다. 장례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부츠단은 절에 있는 대웅전을 축소시켰다.

확장의 감성적 기질은 도다이지의 '노사나불'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 시 나라 현에 있는 도다이지는 헤이안 시대 건설된 세계 최대 목조건축물이다. 대불전이 창건될 때 정면은 11간 86m였다고 한다.

한국인에게는 범법과 강박이 있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김홍도의 '대궐도'는 격식을 벗어난 신사

리의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저자는 "도자기에 유약을 입힐 때 유약을 풀어 놓은 그릇에 담방 담갔다 꺼내 올린 데서 비롯된 담방 기법처럼, 그림 속 이야기는 기법 모두 담방스럽다"고 설명한다.

담방에 상응하는 것은 강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기해기사계첩'의 신임의 예를 든다. 화원 김진여는 신임을 그리면서 터럭 하나까지 세세하게 그린다. 닭을 정도로 정밀하다. 미화나 과장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려낸다. 내려앉은 눈꺼풀까



중국 푸젠 성에 있는 폐쇄형 공동주택 '토루'.



축소지향의 문화를 보여주는 일본의 라멘 가게.

지 지나칠 정도의 묘사는 '강박'이 아니고서는 풀이 낼 수 없다.

저자는 "한 국가의 감성적 기질이 이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할 리 없다는 경험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며 "현재를 결정하는 것은 선천적 기질보다는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상황이라는 시선"이라고 강조한다. <다들책방·6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초가속

김대식 외 지음

코로나 19 초기만 해도 많은 이들은 신종 플루, 사스, 스페인 독감과 비교하며 기존의 시선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했던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뇌과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경영학, 중국학 등 자신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팬데믹과 감염병이 가져올 시대의 흐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했다. 이렇게 해서 발간된 책이 '초가속'. 김대식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동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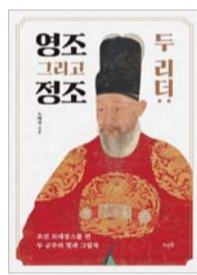
각각의 저자는 저마다의 시각으로 코로나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진단한다. 장덕진 교수는 코로나 감염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케빈 베이컨 게임에서부터 이어져오는 사회관계망 네트워크 허와 실을 꿰뚫는다. 그는 감염 네트워크 또한 10% 핵심만 차단하면 90%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역학수 구조임을 발견한다.

역사학자인 주경철 교수는 '감염병'을 매개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분석한다. 역사의 방향타를 틀어온 현장들 위에는 감염병이 존재했음을 밝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책의 핵심 개념인 '가속화'를 제시한다. '코로나 19는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폭발적으로 가속시키는 가속기이자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저자들은 현재 상황은 기존 제1세계 중심으로 성립됐던 세계질서, 다시 말해 세계화가 퇴행되고 각 지역 권역 중심의 블록 구조로 탈세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예상한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할까. <동아시아·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두 리더·영조 그리고 정조

노혜경 지음

영조는 왕이 될 수 없는 왕자 신분 시절이 있었다. 20대 시절을 쫓아다니는 창외동 사저에서 보냈다. 이 기간은 영조에게 서민들의 실상과 삶의 애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훗날 왕에 즉위해 펼쳤던 '민생 특화' 정책들을 당시 머릿속에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도 백성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화성 건설 당시 피야벌에서 고생하는 일꾼을 위해 '적서단'이라는 환약을 개발해 보급했다. 아들 순조의 세자 책봉식에서는 계층과 지역을 초월해 두루 혜택이 가는 포상과 사면을 공리하기도 했다.

영조와 정조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군주로 평가받는다. 호서대 혁신융합학부 노혜경 교수의 '두 리더: 영조 그리고 정조'는 두 군주의 결정적 순간들을 조명한다. 저자는 두 군주가 꿈꾸었던 르네상스 조선을 50가지의 장면을 통해 들여다본다.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시대 변화 요구를 인지하고 이에 부응하는 개혁 정책을 펼치려는 의지를 꼽는다. 물론 시대의 요구에 대한 판단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언급한대로 영조는 출신 배경에 한계를 지녔다. 무수리 출신 아들이라는 사실은 정통성 논란을 자아내는 요인이었지만 극복 의지 또한 갖고 있었다. 이후 그의 '불편함'은 신분 구조 변동 양상을 보이는 당대 사회를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혁성의 기제가 됐다.

또한 정조는 할아버지이자 선왕인 영조의 개혁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무엇보다 '공평'을 추구하며 민간의 세금이나 부역을 감면해주기도 했으며 왕실 행사에 백성을 무상 동원하던 관행을 깨기도 했다. <뜨인돌·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숨은 과학

김병민 지음

과학은 우리 일상의 풍경을 수없이 바꾸어왔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



최근 발간된 '숨은 과학'은 만년필, 스키치테이프, LED, 돼지껍데기, 방구공, 비타민 C, 마가린, 미세먼지 등 33가지 다양한 사물들과 사건들에 '숨은 과학'을 발굴한다. 나아가 '숨은 과학'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여정을 풀어낸다.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강연과 교양과학 칼럼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저자 김병민은 한림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사이언스 빌리지', '주기율표를 읽는 시간' 등을 펴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일상 속 사물들에 숨어 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과학을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과학자들의 '숨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별의 사진을 검토하는 계산원이었던 천문학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여성 천문학자 헨리에타 레빗,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다가 최초의 화학합성 염료를 만들어 유기화학의 출발점이 된 윌리엄 헨리 퍼킨, 난방장치를 개발하다가 최초의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 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아울러 수많은 인류를 구원했지만 생태계를 파괴시켜 새가 울지 않는 '침묵의 봄'을 불러온 말라리아 살충제 DDT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저자는 "과학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과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교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월의책·1만6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